

외국 사신의 진상품 ‘강황’

세종실록과 왕실의학

유구(琉球) 국왕의 둘째 아들 하통련(賀通連)이 사람을 보내어 좌, 우의정에 게 편지와 선물을 바쳤다. 선물은 단목(丹木) 5백 근, 백반(白礬) 5백 근, 금란(金欄) 1단, 단자(段子) 1단, 청자기(靑磁器) 열 가지, 심황(深黃) 50근, 천궁(川芎) 50근, 곽향(藿香) 50근, 청자화병(靑磁花瓶) 하나, 침향(沈香) 5근이다. <세종 즉위년 8월 14일>

유구국은 일본 가고시마 남쪽의 오키나와현에 위치했던 왕국이다. 류큐국으로 불리는 이 나라는 동남아, 중국, 일본 등과의 중계 무역으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1609년에 가고시마 사쓰마 번의 침공을 받았고, 1879년에는 일본에 강제 병합됐다.

고려 때부터 우리나라와 교류한 류큐국은 조선이 건국되자 조공을 했다. 1392년 9월 11 조선 태조의 조회 때 류큐국 사신이 참석했다. 류큐국 사신은 문관 5품의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그 해 윤 12월 28일과 1400년 10월 15일에 류큐국의 중산왕(中山王) 찰도가 신하를 칭하며 예물을 바쳤다. 1409년 9월 21일에는 찰도를 이어 왕이 된 사소가 조선에서 여러 차례 보내준 선물에 대해 감사 사신을 보냈다. 또 류큐국에서는 몇 차례 왜구에 의해 노예가 된 조선인을 송환했다.

태종은 왜구에게 포로가 돼 류큐국으로 팔려간 백성들의 회환을 위해 1416년 1월 27일 이예(李藝)를 사신으로 보내 44명을 귀국시켰다.

세종 즉위년인 1418년 8월 14일 류큐국에서 예물을 바쳤다. 2년 전 이 예가 류큐국을 방문해 많은 선물을 준 답례 의미였다. 예물은 말을 만드는 재료인 단목, 공예직물인 금란, 화려한 도자기,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침향 등 사치품이다. 또 약재인 심황(深黃), 천궁(川芎), 곽향(藿香)도 있었다.

약재 중 주목되는 것은 심황(深黃)이다. 인도 남부가 원산지인 심황은 옛사람들에 의해 염료, 양념, 흥분제, 향신료, 화장품으로 활용됐다. 약용은 뿌리줄기가 이용되는데 성질은 약간 쓰면서도 화



사진=픽사베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심황’ 오늘날 ‘강황’ ‘강황’ 소염, 항암, 항산화 효과 뛰어났다 동의보감 “뜨겁고(熱), 맵고(辛), 쓰다(苦)”

끈거린다.

선조는 36년(1603년) 1월 3일 당상관과 낭청을 파직한다. 이유는 왕실 제향 때 쓰는 올찬주의 원료를 올금에서 심황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올금과 심황은 다른 것이다. 생강과도 모양만 비슷할 뿐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심황은 아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강황으로 여겨진다. 생강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 강황은 소염, 항암, 항산화 효과가 있다.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 예방, 체지방 분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어혈, 혈종, 종기를 삭이는 데 활용한다.

동의보감에서는 강황을 다음처럼 설명했다. “성질은 뜨겁고(熱), 맵고(辛), 쓰다(苦). 효능은 올금 보다 강하다. 혈괴(血塊), 응종(癰腫), 월경, 어혈, 풍, 기창(氣脹)에 좋다. 해남산은 봉아술(蓬莪), 강남(江南)에서 나는 것은 강황이다.” 동의보감은 망나라 이시진이 지은 본초강목을 인용했다. 따라서 강남이나 해남은 중국 남부지역을 일컫는다. 강황은 수천 년 전부터 인도 등 남아시아에서 전통의학, 염료, 향신료 재료로 쓰이다가 동아시아에서는 한약재로 활용됐다.

노란색 강황으로 조선이 고민한 적도 있다. 옛사람은 색에 의미를 부여했다. 검은 현(玄)은 하늘과 시원을 뜻하고, 노란 황(黃)은 땅을 뜻했다. 황제의 평상

복은 황색과 자색(紫色)이다. 중국의 백성은 황제의 색깔인 현, 적, 자색에 신경을 써야 했다. 조선도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노란 황색 사용을 자제했다. 세종은 27년 8월 6일 의정부에 전지했다. “현(玄)은 하늘빛이기 때문에 가장 높고, 황제의 평상복은 황색이다. 황(黃)은 땅 빛이기 때문에 신자는 입지 못한다.”

태종 17년 5월 20일, 일본 사신이 강황인 심황(深黃)을 바쳤다. 외교를 담당한 예조는 선물 수령 여부를 고민한다.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면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태종은 일본의 강황 선물을 받지 않는다.

이에 비해 세종은 류큐국의 강황 예물을 받았다. 중국과의 관계가 아닌 류큐국의 성의만 생각했다. 또 답례품도 충분히 보냈다. 강황은 일본이나 류큐에서 조선의 임금에게 바칠 정도로 소중한 약재였다.

최주리 한의사 bora11@meconomynews.com

최주리 원장…………… 왕실의 전통의학과 사상의학을 연구하는 한의사로 대한황실문화원 황실의학 전문위원이다. 창덕궁한의원 원장으로 한국한의학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몸을 보(保)하고, 체중을 감(減)한다’는 한의관을 전파하고 있다.



기자수첩

‘자영업’ 개념 모르고 ‘소상공인法’ 발의한 여당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을 발의했다. 여당의 입법 발의는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올 해 안에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2개월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홍의락 의원은 애초 올 해 상반기에 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에나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당 대표의 ‘독촉’에 입장을 바꿨다.

여당이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연구용역도 거치지 않고 법안부터 발의하는 행위는, 그 내용의 문제를 떠나 ‘졸속 입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자유한국당 김병연, 홍철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과 달리, 자영업자의 개념을 추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것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은 큰 차이가 없다.

홍 의원은 법률안 제안 설명을 통해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자영업자의 특

성과 업종별로 다양한 자영업의 성격을 정책적으로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자영업자의 개념을 추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자영업자’ 개념은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 정책대상으로 삼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변호사와 의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세무사 등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도 넓은 의미로 보면 ‘자영업자’다. 연 매출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대형 점포 운영자도 ‘자영업자’다. ‘자영업자’ 개념에 대한 정확한 개념 구분 없이 법률을 발의해 혼란만 심화시킬 수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의 본래 취지는 영세자영업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배려를 하는 데 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홍 의원실의 기본 취지가 본래 취지대로 이뤄지려면,

홍 의원실 관계자는 고소득·전문직도 ‘자영업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자의 지적에 “그게 그렇게도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

안에 자영업자 개념을 삽입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편의점 사장님들 때문”이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런 사실은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여당 의원실 관계자들조차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영업자 개념’을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상공인 혹은 영세자영업자 지원 법률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혜적 성격의 복지 정책 정도로 이해하는 시각도 문제다. 소상공인 관련 법률이나 정책은 ‘복지’가 아닌 ‘공정거래’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대표의 말 한 마디에 법률안 제정을 위한 최소한의 연구용역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법안을 마련한 여당의 행태, 관계자들의 기본 개념에 대한 무지 혹은 몰이해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과정의 어려움을 반증한다.

영세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본래 취지대로 이뤄지려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전문가에 의한 연구용역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김홍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기자수첩

‘밑 빠진 독’ 이커머스, 출혈경쟁의 딜레마

무려 8000억대의 영업손실에도 “괜찮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업체들이 있다. 한 해 수 백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이 아니다. 소셜커머스 3사 쿠팡과 위메프, 티몬이다.

소셜커머스 3사의 지난해 실적과 재무상태를 나타낸 감사보고서가 공개되고 있다. 이들이 공개할 지난해 성적표는 또다시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도 대규모 적자를 예고했듯이 유동성 위기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소셜커머스가 태동한 지 수년에 불과한 데다 3사 모두 적자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혼란을 부추기는 주된 배경이다.

위메프는 지난 3일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거래액은 5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28.6% 늘었다. 반면 매출은 4294억원으로 전년 4730억원보다 오히려 소폭 줄었다. 영업손실은 390억원으로 전년도 7.3% 줄었다.

1000억원대 손실을 낸 타 업체보다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다. 반면 지난해

에는 11월 이후 매일 할인 프로모션을 개최하는 등 마케팅에 집중해 손실 폭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쿠팡은 오는 15일쯤 지난해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지난해 쿠팡 매출 규모를 4조500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전년 2조6846억원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다. 적자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수익성보다는 몸집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몬은 오는 12일 지난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도보다 30% 늘어난 5000억원가량으로 전망된다. 영업적자 규모는 전년 1100억원가량과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커머스 업계는 “손익계산보다 규모와 시장 비중을 올려야 할 때”라고 항변한다. 아직 기업 간의 구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적 투자에 따른 ‘고지 선점’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면 해마다 위험의 목소리로 꾸준히 제기된다. 온라인 쇼핑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경쟁도 치열해지는 탓에 앞날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어서다. 빠른 배송과 가격 경쟁 등 투자를 확대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야 하는 동시에 수익성까지 챙겨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여기에 원저는 변수도 등장했다. 최저가 경쟁은 물론 배송 경쟁에도 대형마트와 오픈마켓들이 합세하며 소셜커머스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돌발변수를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들처럼 영업손실을 투자금으로 메우는 구조에서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치킨게임 끝에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적자를 거듭하는 사업을 언제까지나 유지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내실을 다지기 위한 수익 다각화 전력과 차별화된 비전이 절실할 때다.

한지영 기자 summer@meconomynews.com

스타 SNS



2019 기해년(己亥年) 5월의 띠별 운세

쥐(자, 子)

우유부단한 성격때문에 기회를 놓친다. 용기를 내 과감히 맺고 끊어라. 72년생 남과 다투지 말라. 반드시 손실을 본다. 함는 것이 이기는 것. 60년생 뜻밖의 성공을 하고 재물도 얻는다. 그러나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니 방심하지 말라. 청탁은 거절하라.

소(축, 丑)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73년생 직장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일하라. 곧 인정받고 승진한다. 61년생 아이들과 오랜만의 외출이다. 친구처럼 같이 지내는 하루. 동료와의 사이가 벌어지는날같이 잘 지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호랑이(인, 寅)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노력하면 운은 열린다. 74년생 전화를 받을 때 예의를 지켜라. 전화 한 통화로 좋은 인연이 맺어질 수 있다. 62년생 직장내 시비에 끼여들지말라. 관재가 염려되니 참아라. 50년생 귀인이 도움을 줄 듯.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라.

토끼(묘, 卯)

작심삼일인 당신은 언제나 냉철함을 가지게 될 것인가. 단호하게 행동하라. 75년생 옷매무새를 좀더 단정히 하라. 첫인상이 중요한 법. 63년생 무절제한 생활로 행복에 금이 간다. 이제 그만 각성하라. 51년생 너무나 유순한 당신은 좀 더 엄격해 보이게 행동하라.

용(진, 辰)

잔치가 됐건 일거리가 됐건 늦지 않게 서둘러야 뜻을 펼칠 수 있다. 76년생 나쁜 친구들 속에 휩쓸려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 64년생 집을 일야 본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할 듯. 함정이 있다. 52년생 생활이 고달프나 참아야 한다. 지금 와서 다된 법에 재뿌리지 말라.

뱀(사, 巳)

사업 아이디어는 매우 좋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너무 많은 돈을 끌어들이는 것은 삼가라. 77년생 아직은 상대가 더 강하니 조용히 실력을 기를 때. 65년생 신호위반으로 경찰과 다툼 수 있으니 운전 조심. 53년생 소송에서 패배가 예상된다. 조용히 화해하라. 감기 몸살 조심.

말(오, 午)

하는 일마다 꼬이는 이상한 하루. 돈 쓰지 말고 일찍 귀가. 78년생 친구간에 뜻하지 않는 일로 오해가 생긴다. 지금 해명은 불가. 66년생 부동산 관련업무는 식사모임에서 좋은 일 있다. 문단 속을 철저히. 54년생 끝지 아픈 하루. 일찍 귀가해서 아내와 맥주 한잔.

양(미, 未)

많은 일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 욕먹고, 재물이 나가는 하루다. 79년생 관재수. 감정을 주려라. 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든다. 67년생 까뚝한 예절로 상대를 감동시켜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55년생 라이벌의 약점을 찾아내어 승전의 기회를 잡는다.

원숭이(신, 申)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격. 안주하면 퇴보한다. 개선의 결단야필요하다. 학생은 쓸데없는 곳에 탐닉하느라 학교 성적 곤두박질. 생활방식 전환 필요. 68년생 뒷사람의 눈에 밟히더라도 주장할 것은 꼭 주장하라. 56년생 자식들 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닭(유, 酉)

아직 직업을 바꿀 때가 아니다. 힘들더라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대학생은 시험을 망쳐 속상하지만 연인과 즐거운 시간. 69년생 다른 일의 자유유혹한다. 그러나 좋은 결과가 없으니 현직에 열심히 근무하는 것이 좋다. 57년생 여성에게 한 눈 팔지 말라.

개(술, 戌)

한마디 실수로 인하여 곤든 탐이 무너진다. 82년생 밖에 나가면 돈을 잃어 버리니 외출을 금지하라. 70년생 무리하게 계약을 성사시키려다 손해를 보니 주의. 58년생 적극적으로 나가면 성공. 투자, 금전거래 모두 좋다. 무조건 말조심. 말 한마디로 모두 망칠 수 있다.

돼지(해, 亥)

사업아이는 것은 항상 적이 있으니 항상 대비를 해야 이길 수 있다. 71년생 외부 경쟁자의 방화로 어려워지니 대비를 하라. 59년생 사소한 일로 가정불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라. 과도한 욕심은 금물이다. 주식, 증권투자는 관망함이 좋다.

2019년 5월 1일 ~ 2019년 5월 31일까지 띠별 운세입니다
사주역학의 만남 라이프비전(www.lifevision.co.kr) 제공